

# 우상혁이 해냈다

세계육상선수권 남 높이뛰기  
결선서 2m35 기록 2위에 올라

'스마일 점퍼' 우상혁(26·국군체육부대)이 한국 육상 사상 최초로 세계육상선수권대회 메달을 획득했다.

우상혁은 19일(한국시간) 미국 오리건주 유진의 헤이워드 필드에서 열린 2022 세계육상선수권대회 남자 높이뛰기 결선에서 2m35를 기록해 2위에 올랐다.

2m35를 2차 시기에 넘은 우상혁은 2m37에서 현역 최강 무타즈 예사 바심(31·카타르)과 금메달을 놓고 경쟁했다.

우상혁은 2m37을 1차 시기에 넘지 못했고 바심은 2m37을 1차 시기에 뛰어넘었다.

그러자 우상혁은 패스한 뒤 2m39에 도전하는 쪽을 택했다.

2m39에서 첫 시도를 실패한 우상혁은 두 번째 도전에서도 바를 넘지 못하면서 은메달이 확정됐다.

바심은 2017년 런던, 2019년 도하 대회에 이어 세계선수권 남자 높이뛰기 3연패에 성공했다.

은메달은 한국 육상의 세계선수권대회 역대 최고 성적이다.

한국 선수가 세계육상선수권에서 메달을 딴 것은 2011년 대구 대회 남자 경보 20km에서 동메달을 딴 김현섭에 이어 우상혁이 두 번째다.

김현섭은 2011년 대구 세계육상선수권 남자 경보 20km에서 1시간17분17초를 기록, 6위에 자리했다. 하지만 이후 도핑 테스트에서 금지약물에 양성 반응을 보인 선수가 대거 나오면서 3위까지 올라갔다. 김현섭은 8년이 지난 2019년 도하 세계선수권 기간 중 세계육상연맹으로부터 메달을 받았다.

트랙·필드 종목으로 범위를 좁히면 세계선수권 메달은 우상혁이 최하다.

올해 3월 20일 세계실내육상선수권대회에서 2m34를 뛰어넘고 한국 육상 사상 첫 세계실내선수권대회 메달을 금빛으로 물들인 우상혁은 올림픽 다음으로 큰 무대로 여겨지는 실외 세계선수권에서 또 한국 육상의 역사를 새로 써냈다. /뉴시스



우상혁이 18일(현지시간) 미 오리건주 유진의 헤이워드 필드에서 열린 세계육상선수권대회 남자 높이뛰기 결선 경기를 치르고 있다. 우상혁은 2m35를 넘어 한국 육상 높이뛰기 최초로 세계선수권 은메달을 목에 걸었다. 금메달은 2m37을 넘은 무타즈 예사 바심(카타르)이 차지해 세계선수권 3연패를 달성했다.

## 전주대 운동현, 아시아주니어레슬링대회 선전

그레코로만형 87kg 3위에 입상  
오민서와 함께 내달 15일부터  
불가리아 개최 세계주니어대회 참가



전주대학교 운동현(운동처방 1년) 학생 선수는 최근 바레인 마나마에서 개최된 아시아주니어 선수권대회 그레코로만형 87kg 3위에 입상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에 참가한 한국 대표 선수 중 메달을 획득한 선수는 운동현 학생 단 한명이다.

운동현 학생 선수는 1회전에 인도(IND) 마노이 쿠마르 선수에게 3:0에서 2회전 3:3으로 역전승하며 준결승에 진출했다. 우즈베키스탄(UZB) 아자피예 아두바노보프 선수에게 5대3으로 아쉽게 석패하며 3, 5위전에 진출했다. 일 본(JPN) 아나모토 다카히로 선수를 1분 30초 만에 테크니컬 폴승(8:0)을 거둬 3위를 차지했다. 함께 참가한 오민서 학생 선수는 3, 5위전에서 패하면서 5위에 머물렀다.

이에 운동현, 오민서 학생 선수는 아시아주니어 선수권대회 5위 입상자까지 출전 자격이 주어지는 세계주니어 선수권대회 출전권을 획득했다.

김윤호 지도자는 한국 대표팀 감독으로 선발

돼 운동현, 오민서 학생 선수와 함께 8월 15일부터 불가리아 소피아에서 열리는 세계주니어 선수권대회에 참가한다.

운동현 학생 선수는 "고3 때 아시아주니어 선발됐는데 코로나로 경기가 취소돼 아쉬웠다"며 "처음으로 국제무대를 경험할 수 있어 좋았고 8월에 개최되는 세계주니어 선수권대회에서는 스탠드 기술보안과 그라운드에서의 특장력을 높여 우승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 태권도 대축제 참가접수 시작

내달 11일까지... 2022 태권도 문화 페스티벌, 9월 3~4일 개최  
"기존 틀 벗어나 문화형으로 기획...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어"

태권도진흥재단 이사장 오응환, 이하 재단이 준비한 태권도 대축제, 2022 태권도 문화 페스티벌 참가 접수가 시작되어 활기를 띄고 있다.

태권도 문화 페스티벌은 태권도를 통한 힐링 축제로 온라인 예선평가, 대면 본선평가 방식으로 오는 9월 3일, 4일 오프라인 문화축제로 열릴 예정이며 참가접수는 8월 11일까지 가능하다.

올해 4회째에 접어드는 태권도 문화 페스티벌은 음악을 접목한 창작 태권 체조 경연인 '킹 오브 더 태권 댄스'와 단체 배틀 형태로 기술격파와 개인 및 팀 워크 기량을 겨루는 '태권 팀 배틀', 태권도원 시설·콘텐츠를 활용한 태권도장 1박2일 경연 프로그램 '태권 히어로즈' 등 3개 부문으로 초·중등부와 고등·대학·일반부, 태권도장 수련생으로 나뉘어 진행된다.

'킹 오브 더 태권 댄스', '태권 팀 배틀' 경연은 총상금 2400만원으로 각 경연 부문 1위 팀에게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 수여된다. 예선은 8월 18일에 참가 신청 시 제출한 영상을 심사하고, 최종 본선 진출팀을 대상으로 9월 3일과 4일 태권도원 태권전에서 심사위원과 청중심판단의 심사로 우열을 가릴 예정이다. '태권 히어로즈'는 태권도장 수련생을 대상으로 1박2일 숙박, 식음, 콘텐츠 등(교통비 제외)을 지원해 운영된다.

특히 올해는 태권전 주변 문화 예술 체험



할·공연 프로그램 등을 준비하여 태권도원 당일 방문객 및 숙박객에게 다채로운 콘텐츠를 제공할 예정으로 본선 경연 시 대회 공정성과 참여형 축제의 목적을 살리고자 태권도 대회 최초로 청중평가단을 구성해 양방향 소통을 통한 고객 주도 참여형 축제로 변모할 예정이다.

태권도진흥재단 오응환 이사장은 "기존의 태권도대회의 틀을 벗어나 문화형 축제로 기획된 이번 페스티벌은 태권도를 쉽게 접하고 즐기고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라며 "국기 태권도의 관심이 고조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란다"는 메시지를 남겼다.

한편 2022 태권도 문화 페스티벌 참가접수와 안내는 태권도 문화 페스티벌 웹사이트(<http://www.2022tcf.or.kr>)에서 자세히 알 수 있다. /무주=전문선 기자

## 오늘 '아·태 마스터스 온라인 스토어' 오픈

'아치&태치' 인형 등 10여종 판매

2023 전북 아시아·태평양 마스터스대회 조직위원회(위원장 김관영)는 대회 마스코트인 '아치(Achi)와 태치(Taechi)'가 들어간 기념품의 1차 제작을 완료, 인터넷 판매를 위한 '온라인 스토어'를 20일 오픈한다고 밝혔다.

주요 판매 상품은 마스코트를 이용한 인형과 가방걸이, 배지, 우산, 텀블러, 타올 등 10여종이며, 각종 인형과 봉제, 완구, 의류, 문구, 가방 생활용품 및 잡화류 등 30여종을 추가 제작할 예정이다.

이번에 판매를 개시하는 상품은 2023 전북 아·태 마스터스대회 온라인스토어 홈페이지(<http://www.apmg2023mall.kr>)에서 구매



'아치&태치' 마스코트 인형 세트

할 수 있다.

특히 조직위원회와 기념품 제작사인 (주)에프앤에스는 이번 온라인 스토어 오픈을 기념해 '아치(Achi)&태치(Taechi)' 마스코트 인형

을 8월 19일까지 10% 할인 판매하는 특별 이벤트를 추진한다.

(주)에프앤에스는 2023 전북 아시아·태평양 마스터스대회 공식 상품화권자로, 프로야구단(삼성라이온즈, NC 다이노스) 라이선스 사업을 담당하면서 제작, 판매, 유통의 노하우를 쌓아온 이 분야 전문 기업이다.

2018 평창동계올림픽, 2019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등 국제행사의 상품화권자로서, 풍부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는 국내 라이선스 상품 제작 중견업체다.

올해 10월부터는 상품화권자 보유매장 및 운동인구가 많은 다중이용시설에 오프라인 판매점도 설치할 예정이다. 아울러, 아·태 마스터스대회 개최 기간 동안에는 대회 참가자 및 관람객들이 직접 기념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시·군별로도 굿즈마켓(기념품 판매소)을 설치 운영한다. /정은성 기자

익산시의회  
IKSAN CITY COUNCIL

시민을 사랑합니다!  
오직 시민의 편에서는 익산시의회가 되겠습니다!

익산시의회  
제9대 개원

council.iksan.go.kr